

36번째, 농기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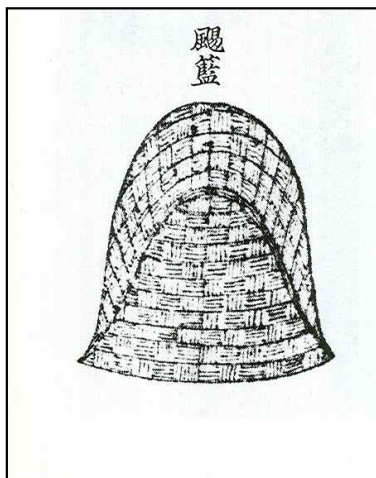
거름을 담아 나르는 농기구 ‘삼태기’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3.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삼태기의 명칭

삼태기는 거름이나 재·곡식·흙을 퍼담아 나르거나 뿌리는데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삼태기에 대한 기록은 1527년에 지어진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산태’로 처음 등장한다. 삼태기를 일컫는 문헌상의 다른 말로는 『북학의(北學議)』의 분(畚), 『해동농서(海東農書)』의 양람(颺籃), 산태 등이 있다. 16세기의 ‘산태’는 17세기 이후에는 삼태로 변형되어 나오며 20세기 초의 <조선어사전 456>(1920)과 <조선어사전 741>(1938)에까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삼태는 삼태기의 준말이 아니라 삼태를 토대로 ‘삼태기’란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삼태에 ‘도구’를 지시하는 접미사 ‘-기’가 결합된 어형이 삼태기이다. 이는 ‘막대’라는 단어에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막대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颺籃. 『해동농서(海東農書)』>

2. 삼태기의 재료 및 형태

삼태기를 짜는 재료는 가는 싸리나 대오리, 칩, 짚, 밀짚 등 다양하다. 산간지역에서는 칩이나 싸리로 짜고, 대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대나무로 짜는데 양쪽에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어 손잡이로 삼는다. 짚새끼로 짤 때는 위쪽에 덩굴성 나무를 U자로 휘어 손잡이로 삼고 이것에 의지하여 바탕을 짠다.

삼태기는 각 지역에 주로 나는 재료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추어 재료를 선택하였다. 짚으로 만든 삼태기는 촘촘하여 재를 담거나 씨앗을 담기 편리하며 싸리로 만든 삼태기는 가볍고 바닥이 성글기 때문에 돌을 주워담거나 거친 두엄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제주도에서는 삼태기를 ‘갈채’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과 달

리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좌우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징을 지닌다. 또 해안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습기에 강한 으름덩쿨을 이용한 삼태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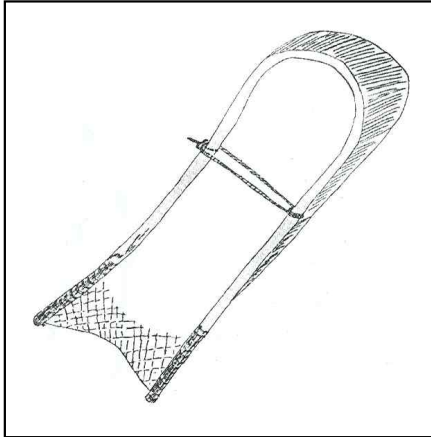
삼태기의 모양은 뒤가 오긋하고 앞이 헤벌어져 있어 낱알이나 가루로 된 물질을 담고 뿌리기에 알맞은 형태로 되어 있다. 앞쪽의 바닥은 두 겹으로 짜는데, 이는 곡식, 재 등을 퍼 담을 때 찌그러지거나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짚 삼태기	
	
대 삼태기	싸리 삼태기

한편, 『조선의 재래농구』(1924)에 나오는 삼태기는 보통 삼태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길이 1.3m 정도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삼태기보다 큰 편으로 보리밭에 거름을 뿌릴 때 썼다.¹⁾

삼태기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재료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삼태기라고 하지만, 충북 괴산지방에서는 짚으로 만든 것은 삼태기라 하고 싸리나 칩덩굴로 만든 것은 어랭이라 하여 구분한다.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짚으로 만든 것을 거랭이라 하고, 땃가지나 싸리 등으로 만든 것을 삼태미, 삼태기라 한다. 또한 광산에서는 통싸리로 엮어 만든 것으로 보통 삼태기보다는 작은 것을 어랭이라고 한다.

1) 한국농기구도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105쪽



<삼태기, 『조선의 재래농구』, 1924>

3. 삼태기의 용도

삼태기는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농기구이다. 삼태기의 앞은 넓게 트여있고 뒤는 막혀 있어 물질을 손쉽게 담아서 이동하기 편리한 형태를 지녔으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삼태기의 활용은 거름을 주는 도구로, 아궁이의 재를 담아서 잿간에 버리고 흙이나 쓰레기를 나르기도 하고, 재나 퇴비를 바지개에 지고 논밭에 가서 삼태기로 뿌리기도 한다. 또 타작할 때 곡식을 퍼담거나 옮기는 데에도 사용하고, 삼태기를 허리에 차고 밭에 씨앗을 뿌리기도 하며, 고구마·감자 등을 캐어 모으는 데에도 쓴다.



<기산풍속도 발갈이 중 일부> 삼태기에 재거름을 담아 뿌리고 있다.

삼태기는 쓰임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개똥삼태기는 길에서 개똥, 쇠똥 따위

등 거름이 될 만한 것을 작은 호미로 긁어 담는 데 쓰던 삼태기이다. 짚 삼태기 앞 양쪽에 맨 끈을 삼태기 등에서 넘어온 끈에 맨 모양으로 뿔뿔을 길게 하여 어깨에 메고 이용한다. 씨앗삼태기는 씨앗을 담아 밭에서 뿌릴 때 쓰던 삼태기이다. 씨앗이 쏟아지지 않도록 입구가 넓은 일반적인 삼태기와는 달리 입구에도 울을 돌렸다.



<씨앗삼태기>

한편, 삼태기는 부피를 채는 데도 사용되었는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삼태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땅 한 평(약3.3㎡)에는 3삼태기의 거름을 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데 삼태기의 제작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20~30리터의 거름을 담을 수 있다. 또한 퍼 담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복을 받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립국어원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

김광언, 農器具名表, 韓國農器具攷, 1986

김동섭, 제주도 전래농기구, 2004

조홍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2004

이순수, 겨레전통도감 농기구, 2009